

격려사

사부대중의 원력과 희망으로 설립한 BBS 불교방송이 올해로 창사 25주년을 맞이하고, 청명한 가을 기운과 더불어 선상신 사장이 취임하게 되어 축하와 격려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불교방송은 지난 25년 동안 일상에 바빴던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어느덧 TV와 라디오를 아우르는 종합미디어로 큰 변화를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불교방송 공채 1기로서 열악한 방송 환경속에서도 방송의 근간을 만들고자 진력을 다한 선상신 사장이 개국 이래 첫 내부 출신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은 나아갈 길을 냉철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며, 내가 바로 주인이라는 책임경영으로 이어지고 임직원 모두에게 모범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는 견실한 도약을 위한 충분한 기회이자 동력입니다. 불교방송 모든 가족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하여 정진하게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BBS 불교방송은 이제 뜻 깊은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신임 사장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용맹정진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루는 것은 비단 불교방송만의 희망이 아니라 불자 모두의 바람이자 기대입니다. 이는 곧 불교방송에 관심을 더욱 더하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부대중의 소중한 마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중파 종합 방송사이자 중앙 언론사로 지난 25년간 동안 부처님 법음을 널리 전파하고 불교의 대중화와 사회적 기여를 확대해온 공덕을 바탕으로

으로, 앞으로도 시민에게 더욱 가깝고 행복을 전하는 방송이기를 기원합니다.

방송 포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에게 거듭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미디어 포교를 통한 정법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방송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 모두가 깊은 관심과 지원에 한결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교방송의 발전을 위해 근념을 다하시는 이사장 종하 대종사께 공경의 마음을 드리며, 불교계 지도자이자 여러 종단과 기관을 대표하시는 이사님들의 관심과 애정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부대중의 축하와 격려를 바탕으로 앞으로 불교방송이 종교라는 한정된 틀을 벗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언제나 함께하는 유익하고 정겨운 동반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